

집의 말씀

이사야 41:8-16절



변의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해도 학교에 다녀도 집에 있어도 두려움, 염려는 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찾아가 싸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고품이 생각해보니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고품이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다.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룯과 식구들을 구하려는 마음이 앞섰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승

리하고 돌아와서 고품이 생각해보니 이긴 보통 일이 아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너 두려워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내가 너의 큰 삼급이 되어 줄게 즉, 복이 되어 주겠다. 하시며 언약을 맺어 주신다.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너무 가까이에서 여러번의 삶을 들여다 보지 말라. 어지럽다. 멀미는 가까운 곳을 쳐다보니 멀리는 것이다. 멀리 산을 보며, 바다를 보기 바란다. 그러면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과 바다가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지금 당장 내 현실, 내 문제, 질병 이런 것들을 너무나 고품이 생각하면 두려움이 나를 덮쳐버릴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 41장 10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인 줄이 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는 세상이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또한, 암에 걸려서 치료를 앞둔 사람들, 사업의

어려움으로 이자 감당이 어려워져 팔팔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두렵고 낙심이 될까요?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본문 8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아홉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아홉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이다.

의 실패로 인하여 두려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환경을 보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동행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발 벗고 나서 일하신다.

11,12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지렁이 같은 아홉아, 이스라엘아 했다. 15절에서는 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같이 바꾸어 주시겠다 하신다. 지렁이는 아무런 공격하는 것이 없다. 이빨도 뿔도 없다. 이런 약한 우리를 타작기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신다. 또한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다" 하신다.

말4장23절 정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취 주시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놀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해 주신다.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취 주시어 앞길을 인도하신다. 시 119편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발 벗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지렁이 같은 나를 연약한 나를 새 타작 기계 같이 사용하시며 적들을 타작처럼 날려 버려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말하고 있다. 염려는 영어로 '워리(worry)'라고 말하는데, 독일 말에는 '워르겐(wyrgen)' 이 말의 뜻은 '목을 졸라 죽인다'라는 것이다. 두려움, 염려는 자살하는 행동이다. 무서운 죄이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또는 재난으로 사업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나를 괴롭히는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 주신다. 14, 15절) "지렁이 같은 너 아홉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 줄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97. 의인은 없나니(롬3:9~19)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10절)고 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아울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에 선을 행할 생각

도 없고 다 치우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9절에서도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하였는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사람이다"라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데도 그것을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인류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의인도 없고,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한국정조학회 광주전남지부

러시아에서 1917년 3월에 일어난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1917년 11월에 일어난 혁명으로 급진 공산 세력인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여, 러시아는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1922년 12월 30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자립카스 공화국이 연합하여 마침내 공식적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이 탄생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주의 진영(제1세계)'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방 공산주의 진영(제2세계)'이 격돌하는 '양극 체제(냉전)'로 재편되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냉전시대라 부른다.

소비에트 연방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창의성의 소멸과 관료주의의 폐해로 인해 쇠락의 길로 가던 중, 미국과의 군비경쟁은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했다.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소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정책을 펼쳤으나, 결과적으로는 소련의 몰락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1991년 12월 26일에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공식 선언했다.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된지 70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1922-1991).

정치경제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1952.10.27.-)는 1989년 여름<The

National Interest> 16호에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여, 인류의 최종적인 정치 체제로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쿠야마는, 국지적으로 작은 분쟁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세계적 규모의 분쟁은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후쿠야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은 역사 기록으로 남질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후쿠야마는 1992년에 자신의 논문을 확장하여,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인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1927-2008)은 1993년 여름에 <Foreign Affairs>에 논문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을 게재하였다. 헌팅턴은 후쿠야마의

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의 종말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이념적 진화가 종착역에 이르렀고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의 최종 형태로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약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후쿠야마도 인정하지만 유럽에서뿐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분쟁은 이제 막을 내렸다. 대대적 변화가 일어나 곳은 바로 비유럽 세계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소련이다. 하지만 이념 전쟁은 끝났다. "마나과, 평양, 케임브리지 같은 곳에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를 거두었다. 미래의 세계는 이념을 두고 벌이는 흥미진진한 싸움을 거두고 무미건조한 경제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골몰할 것이다. 그 세계는 살기에 다소 따분할 것이

종교전쟁(12)

논문을 반박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끝난 후에는 문명권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팅턴이 열거하는 문명권은 서구문명, 정교회문명, 이슬람문명, 중화문명(유교문명), 일본문명, 힌두문명, 라틴아메리카문명, 아프리카문명 등이다.

헌팅턴이 자신의 논문을 확장하여 1996년에 <문명의 충돌과 세계 질서의 재편(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우리말 번역판 제목은 <문명의 충돌>이다.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 32쪽에서 후쿠야마의 주장을 이렇게 인용한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세계 정세에는 중요한 갈등이 사라졌으며 상대적으로 조화로운 세계가 출현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패러다임이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이런 모델 중에서도 가장 널리 논의되는 것이 후쿠야마가 내놓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명제다. 후쿠야마는 주장한다. "우리

다."고 그는 약간 서글픈 듯이 결론짓는다.]

헌팅턴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 제임스 커스(James Kurth/1938-1994)는 헌팅턴의 논문 <문명의 충돌>에 반응하여, <진짜 충돌(The Real Clash)>을 <The National Interest>지에 게재하였다(1994.9.1.). 제임스 커스는 자신의 논문 <진짜 충돌(The Real Clash)>에서 헌팅턴의 논문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을 평가 분석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진짜 문명의 충돌, 즉 가장 의미심장한 충돌은 '서구와 그 외의 지역(the West and the rest)'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이미 서구 내부, 특히 그 중심 세력인 미국 안에서 이미 진행 중인 충돌이라고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것은 서구 문명과 그리고 또 다른 대연합, 즉 '다문화주의 및 페미니즘 운동'으로 구성된 연합 사이의 충돌이다. 요컨대, 이는 서구 문명과 '포스트 서구(post-Western) 문명' 사이의 충돌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예배당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사암로(대로변)
*우산동, 소촌동, 신촌동이 교차하는 큰 사거리 인근
- 면적: 대지 121평, 연건평 110평
1층-60평(사택, 식당, 교육관)
2층-50평(예배당, 120~150석)
- 금액: 8억4천만원

010-2679-4934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신청로(신청지구)
- 면적: 대지 67평, 연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중 이층 유아실, 방송실
- 금액: 7억원
*리모델링(천장경 황도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중흥동 806-13(2층)
인보회관 건너편
- 면적: 35평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010-7129-0281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공양로 159-1 / 2층
- 면적: 40평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 월35만원
*권리금 있음 *깨끗하고 위치도 좋음

010-8884-2988

교회 임대

- 위치: 북구 서화로 240-18/ 3층
- 면적: 57평
- 금액: 보증금 500만원 / 월50만원
*권리금: 인테리버 협의

010-9436-3613

교회건물매매

- 위치: 북구 설죽로 471번길 77 일곡사거리 북광주체육국 옆-(전철2호선 일곡사거리역 옆)
- 면적: 대지-72평, 건평-110평
1층 주택 30평, 교육관 및 사무실 25평 (화장실별도)
(1층 주택과 교육관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됨)
2층 교회 본당 40평
3층 유아실, 방송실 15평 (심자가 대형 헬고 중합)
- 금액: 건물 및 교회비품포함 4억 5천만원

010-2518-8291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운임동 대자로 87 2층
- 면적: 123.2㎡
*티밭 10평 별도로 있음
*1층같은 2층(공간 넓고 자유로운)
- 금액: 2억원 *살림 가능
*성물, 음향시설, 기타 생활용품 인수가능

010-8609-7224

교회 임대

- 위치: 북항동사무소 맞은편 (목포엘림수양관)
- 면적: 40평 (3층)
- 금액: 보증금 3천만원 월44만원
*조정가능

010-5302-3389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청소년수련관 부근 3층
- 면적: 대지 56평
1층 교회 2, 3층 주택
- 금액: 6억 3천만원
*성구 일체 포함
*수리 후 건물 깨끗

010-8210-5005

교회상가건물 매매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공양로 182번길(상가 4층)
- 면적: 대지 62평, 건평 131평
1층-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의점, 카페 가능)
2층-교회 / 3층-조정 사무실 / 4층-사택
- 금액: 6억(조정가능) *교회비품무로 드림(비품포함가능)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복지시설, 타입중가능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음

010-4154-7945

교회 매매 및 임대

- 위치: 송정동 아파트상가 (반지하 통풍, 환기 잘됨)
- 면적: 30평 예배당(주방겸 목양실)
- 금액: 8천5백만원 / 임대: 5050 월35만원
*성물, 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리모델링, 교통주차편리

010-5600-8890

교회 임대

- 위치: 남구 백운로 66번길 파리버게트 3층
- 면적: 55평
- 금액: 보증금 1,500만 / 월 60만
*비권있음

010-7488-3375

교회 매매

- 위치: 무안군 일로읍 월말리(사랑하는교회)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대지114평, 교회40평, 사택20평
- 금액: 1억 4천만원
*식당, 창고, 화장실
*성물의 자동차스타렉스1인승, 집기포함

010-8355-9200